

결혼 초기 여성이 체험한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

이 지 선*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석사과정)

천 혜 정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조교수)

결혼적응은 결혼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서 조화롭고 기능적인 부부관계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결혼한 지 5년 미만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의 25.2%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통계청, 2004), 결혼 초기 부부의 경험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결혼 초기 부부의 결혼 적응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결혼적응을 하나의 종속변수로 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결혼적응이라는 체험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 초기 부부 당사자들 중 아내들이 결혼생활의 적응과 관련되어 겪는 경험에 초점을 두고 결혼생활 적응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결혼한 지 5년 미만의 5명의 기혼 여성으로서 20대 후반의 전업주부들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방법은 질적 인터뷰로써 2005년 5월 4일부터 9월 10일까지 참가자의 집에서 1-2번의 인터뷰를 가졌다. 참가자들이 가능한 자유롭게 그들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인터뷰 질문은 구조화하지 않았으며, 다만 인터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제와 관련된 넓은 질문과 확인을 위한 보조 질문을 하였다.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비밀보장과 녹음기 사용을 설명하고, 참가자의 허락하에 인터뷰의 전과정을 녹음하였으며, 구술자료를 필사본으로 옮겨 분석자료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중간'으로 맞춰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참가자들이 언급한 '중간'이란 물리적인 중간이라기보다는 내 마음대로만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도 배려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었다. 둘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여우'가 되는 것이다. 남편이나 시댁과 생활습관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를 다루는데 점점 요령이 생기고 다툼이 줄어들는데, 이러한 결혼적응과정을 스스로가 여우가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었다. 셋째, 결혼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배우자가 '남자'에서 '남편'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연애하는 기분으로 생활을 하다가 점차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면서 배우자가 남자라는 느낌보다는 남편이고 가족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이 결혼생활에 적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변화를 깨닫고 도전에 나선 스니프와 스키리에게는 새로운 치즈창고가 기다리고 있지만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지에 집착한 햄에게는 굶주림만 남았다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 참가한 여성들은 결혼생활 적응이라는 과정에 대해 자신이 변화하고 커나간다는 성장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